

## 유가사상이 현대한국 기초교육에 미친 영향

중국에서 기원한 유가문화는 한국에 전해진 지 오래 되었고 한국의 문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한국발전과정에서 정치이념, 인재사용, 교육제도 그리고 인간의 내적인 修養 등 모든 분야에서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교육분야에서는 사서, 오경 등 유가經典을 주요 내용으로 귀족들에게 교육시켰으며 각 시기의 교육이 다 유가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18세기부터 서구문화의 침입에 따라 한국에서 전통적인 유가문화와 서방문화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교육분야에서는 새로 설립된 학교에서 서방의 학문체제로 지식을 전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교육제도를 설립하였다. 이와 동시에 유가사상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었다. 그러나 서방문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종은 사회의 무질서 및 인간의 정신적 빈궁을 초래하여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전통문화를 생각하게 하였으며 유가문화의 신생을 도래하였다. 이와 함께 유가문화가 현대한국에 미친 영향은 한국사회의 현대화발전에 따라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상의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기초교육으로부터 착수하여 전통적인 유가교육사상이 현대한국기초교육의 여러 방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유가문화와 한국 기초교육간의 관계를 검토하려 한다.

### 제 1 부분: 유가사상이 현대한국 교육관에 미친 영향

유가는 교육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공자로부터 각 시대의 유가학자는 교육이 일정한 사회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활동이며 사회정치활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육이 일정한 나라와 민족의 물질적 문명과 정신적 문명의 건설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융성번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국유가문화의 지대한 영향하에 한민족도 역대로부터 교육의 발전을 극히 중요시하였다. 대한민국이 성립된 후에도 한민족은 교육을 선차적으로 발전시켰으며 동시에 교육의 발전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마멸할 수 없는 역할을 하였다. 즉 유가사상과 문화는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한국은 유가사상의 영향을 심히 받았다. 광복 이후 각 시기에 한국은 사회의 수요에 따라 각이한 교육이념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이념은 유가사상의 정도 부동한 영향을 받았다. 아래에 광복이후 한국교육이념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유가사상이 교육이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민주주의, 민족주의 교육이념(1945--1948)

광복이후 한국교육은 본래의 전제주의, 식민주의적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교육이념을 내세우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교육이념은 그 기초를 민주주의에 두고 그 기초우에서 일제의 지배에 의해 희박해진 국가이념을 강조하게 되었다.

## 2.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정립(1948--1961)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49년 말에 제정된 교육법은 새 공화국의 교육이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되었다. 교육법 제 1 조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소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여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 3. <국민교육헌장>의 제정과 교육이념의 재정립(1961--1980)

1968년 12월 5일에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으로 평가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승리후에 서구의 문화와 기술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관념이 강력한 충격을 받아 한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민교육헌장은 교육의 철학적 기초를 강조하고 교육이 한국 국민의 국가관념을 공고히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게 됨을 강조하였으며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와 국민윤리의 확립, 창의, 개혁 등 발전지향적 가치관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은 국적있는 교육, 새마을 교육, 사회의 교육 등 일련의 교육운동을 벌이였다.

## 4. 전인교육과 평생교육 이념의 확산(1980--1992)

1980년의 7.30 교육개혁은 인간교육의 회복을 위하여 한국교육의 정상화와 과열 과외 금지 등 대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교육개혁은 전인교육과 정신교육, 과학교육과 평생교육이라는 4대 원칙하에 각종 교육방안을 추진하였다.

## 5. 인성화, 정보화, 세계화 교육의 지향(1992년 이후)

한국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는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교육개혁안에서는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변천과정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광복이후 선차적으로 강조한것은 교육의 민족성, 민주성,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었다. 민주주의는 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정치이념으로 중요시된 것이고, 민주주의 교육이념의 정립과 국가이념의 강화는 유가사상의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유가문화는 가정, 집단적 관념과 사회성원간의 상호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한국민족주의의 형성에 잠재적인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

60 년대에 들어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교육이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국민생활수준의 제고와 함께 현실주의의 생활방식과 향락을 추구하는 생활방식도 한국에서 출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교육헌장>에서 국민윤리, 전통과 개혁의 조화 등을 다시금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벌인 "새마을 교육"은 바로 유가의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평생교육은 20 세기 60 년대에 시작된 교육사조이다. 그 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이 교육이념의 지도하에 평생학습의 체제를 수립하였다. 사실상 유가는 교육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학습을 더욱 중요시하고 학습수양을 배양하는것, 가정을 정돈하는것, 나라를 다스리는것, 세상을 평정하는것과 직접 연결시켰다. 목전의 학습화 시대에서 유가의 이런 사상을 이해하면 바로 학습을 첫자리에 놓고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관념을 수립하며 그것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가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로서 한국에서 평생학습체제의 수립은 평생교육사조의 영향외에 유가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인간성 교육이념을 내놓은 것도 전통적인 유가사상의 인본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유가사상은 교육의 개인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지만 개인적 발전에 있어서 사상을 단련하는것과 인간의 개성적 발전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정신수양을 중요시하는것은 물질적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 극히 중요한것이다.

광복 이후 각 시기의 한국교육이념은 모두 정도 부동히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유가문화는 한국 교육원천 중의 하나이지만 한국에서는 현대화 발전과정에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였다.

## 제 2 부분: 유가사상이 기초교육의 내용에 미친 영향

유가는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관념에서 출발하여 자연적으로 "학습에서 우수하면 벼슬을 한다"는 학교운영의 지도사상을 도출하였으며 정치와 벼슬길에 유익한 인문학과(특히는 유가학설)을 고도로 중요시하였다. 한국의 교육도 중국유학의 지대한 영향하에 인문교육을 중요시하였으며 특히는 학생개인품성의 수양에 모를 박았다. 1968 년에 반포 된 <국민교육헌장> 제 1 조에서는 "개인과 사회는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과 협동정신을 북돋아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설치에서 도덕과정과 인문과학과정을 극히 중요시하였다.

도덕과정 설치면에서의 현명한 민족성과 농후한 전통문화의식은 한국 학교도덕교육의 제일 돌출한 특성의 하나이다. 한국은 학교도덕교육의 실시과정에서 시종일관 국민정신교육을 도덕교육의 중핵적 위치에 놓았으며 전통도덕교육을 학교도덕교육의 근본으로 하였다. <국민교육헌장>에서는 한국도덕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반드시 청소년학생에게 국민정신교육을 진행하여 민주적 정신을 발양하게 하며 경쟁의식과 민족생존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는 또한 학교도덕교육사업의 핵심적 임무로 되었다. 소위 "국민정신"교육이란, 곧 민족자신심과 자립·자아적 민주의식을 확립하고 민족자존과 민족부흥의 책임감을 양성하며, 민족주체성을 확립하여 국가부흥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국민정신교육의 추진과정에서 시종 전통문화 특히는 유가윤리의 전파를 통하여 한국국민의 민족정신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전통적 윤리관은 점점 잊혀지고 있고 경시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 이지메, 교내폭력 등 엄중한 사회문제들이 부단히 출현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교육부에서는 유가전통사상을 기반으로 한 "인간성교육"(인간의 정신을 존중하는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간성교육"의 중점적 내용에는 기본예의, 자아의 확립, 효행, 공동체의식 등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과정에서는 교양과 인격의 형성, 사상정치방면의 교육을 포함한 "도덕", "윤리" 등 학과교육 외에도 교원의 훈화, 생활지도, 사회복무활동 등을 통한 특별활동으로 "인간성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게 함으로서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인성교육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예의, 기본질서, 공동체의식 등 교육을 진행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민주적 공민교육(남에 대한 존중과 공공범율질서 등)을 진행하며, 고등학교에서는 다원화의 국제관계, 세계평화교육, 국제예의과 외국어교육 등 세계공민으로서의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에서는 유가의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현존 세계의 동일성과 다양성을 인식하였다. 즉 국가가 "세계화", "세계일체화"의 흐름을 따름에 있어 반드시 지역적 특성과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여야만 자신의 특수성을 발전할 수 있고 부동한 종족, 민족과 국가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집정 이후 "한국의 세계화전략"에 전력하였다. "세계화전략"이란 21세기를 앞두고 정보화 조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보화발전의 선도적 국가로 되기에 전력함을 말한다. 그러나 세계화는 일원화가 아니라 세계화와 함께 다양화를 견지한다. 즉 세계의 공동한 발전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념과 문화전통을 견지한다. 이러한 세계화전략에 적응하여 대통령교육개혁자문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에 <새교육체제를 건립할 데 관한 교육개혁방안>을 제정하였다. 방안에서는 세계화, 정보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학교에서부터 계산기, 영어, 한자, 세계문화사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세계공민적 소질,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이해 및 평화교육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목전의 한국교육개혁 중에서는 유가가 제창한 근로(勤勞)와 인애(仁愛), 가정과 집단,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중용(中庸), 태화(太和)의 사상이 충분히 체현되고 있다. 한국학자들은 유가의 인문교육사상이 전문기술을 편면적으로 발전시킨 서구교육의 부족점을 미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서구는 발달한 물질문명을 갖고 있으나, 그들의 종교와 문화는 "원죄"론과 금전을 위주로 하는 배금(拜金)주의에 기저를 두고 있으며 물질문명배후의 도덕교육면에서 엄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는 인간의 존재(存在)를 핵심으로 정신과 물질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가의 인(仁), 화(和), 공(公) 등 사상은 안정, 평화, 일심협력의 사회분위기의 조성에 유리하며, 현대화과정에서의 과분한 물질주의, 향락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배금주의의 가치관념을 돌려세우는데 유리하다. 이리하여 한국의 교육개혁은 민족전통의 회복과 유가사상의 흡수를 제창하며, 인성의 수양을 가장하고 학생들의 인문수질을 제고함을 첫 번째가는 임무로 하고 있다.

목전 학자들은 유가는 농업을 중요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며, 도덕교육을 중요시하고 과학기술교육을 억제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는 일정한 도리가 있으나 적어도 중국 선진(先秦)시기의 유가만은 이 논리에 맞물리지 않는다. 예하면 공자의 이의통리(以義統利)의 의리관은 도덕교육과정에서의 생산기술지식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맹자도 경제건설과 도덕교육의 밀접한 연계를 주의하였다. 그러나 유가는 선진이후의 발전과정에서 점차 인문교육을 중요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은 한국교육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교육과 경제의 연계가 밀접해 짐에 따라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과학기술과목의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 제 3 부분: 유가교육사상이 교수방법 및 평가에 미친 영향

교수원칙과 방법면에서 유가학자들은 因材施教(대상에 맞게 교양함), 教學相長(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어 부단히 발전함), 啓發教學(계발식 교수), 循序漸進(차례대로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감), 溫故知新(배운 지식을 복습하면 새 지식을 얻음) 등 여러 가지 진리성적인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과 방법은 지금의 한국 초등·중등교육과정에서도 널리 응용되고 있다. 1995년에 제정한 <새교육체제를 건립할 데 관한 교육개혁방안>에서도 유가의 因材施教의 교육사상을 수용하여 인간을 기본으로 인간의 개성을 충분히 존중하며 개성과 인격을 도야하는 교육의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유가는 교원의 권위를 강조하여 교수과정에서 교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하에 한국의 초등·중등학교의 교수과정에서는 보편적으로 교원과 수업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의 학습적 자주성을 억제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에 <새교육체제를 건립할 데 관한 교육개혁방안>에서는 전통적인 응시교육의 개혁에 전력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교육방법을 개혁하고, 학생의 자주적 학습능력의 제고에 힘쓰며, 인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과외교육활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교수평가방면에서 유가의 전통적인 선거와 과거제도문화의 영향하에 장시기동안 선발, 도태의 평가에 전력하여 시험이 교육과 교수의 지위를 능가하였으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학교교육과 교수의 실질적인 목표와 취지로 삼았다. 수업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자연적으로 시험의 결과와 결합하여 "시험을 위하여 가르치고 시험을 위하여 배우는" 수업의 국한성을 초래하였으며 교수와 평가의 상호관계를 전도하였다. 동시에 시험을 치지 않는 학과이거나 과학은 쉽게 교수과목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예하면 과거의 내신제도는 학생의 각 방면에서의 표현을 합쳐서 총점을 얻은 후 또다시 15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 각 학과의 성적이 80%를 점하고, 학생출석률이 10%를 점하며, 특별활동과 행위발전상황 및 교내외복무활동이 10%를 점한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학습성적만을 중요시하므로 품격교육의 주요한 부분인 특별복무활동은 형식에만 그치였었다. 동시에 시험성적을 너무 중시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학생들은 대입시험의 격렬한 경쟁 속에서 단편적 지식의 암기와 문제풀이를 위주로 하는 학습에 몰혀 창조성 능력의 발전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정보화와 세계화를 특징으로 창조성, 협동정신, 경쟁력을 소유한 한국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 21 세기의 새 교육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목전의 개혁에서는 과거의 학과성적에 의한 선발관례를 타파하고 학습성적 외 학생의 인성을 중요시하는 다양한 표준으로 선발하는 관례로 전변하였다. 목전 실행 중인 종합생활기록부제도는 학생개체의 흥미와 소양의 발견과 개발에 주의를 돌리며 학생들의 자기실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각 과목의 성적수준, 등급, 학습능력, 흥미 등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출석정황, 과외활동정황, 집체활동, 복무활동, 자격증서의 획득정황, 학과경색의 참여정황과 성적 및 장려정황, 사상품성 등 학교생활에서의 총체적 상황도 여실히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수평가방면에서 한국은 점차적으로 유가문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탈피하여 평가의 합리화, 전면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 제 4 부분: 유가문화와 한국기초교육의 현대화

비록 교육의 발전이 사회의 경제와 정치의 발전에 비해 상대적인 독립성을 지니고 있지만 근본상에서 교육현대화의 전면적인 전개와 실현은 사회주체적 구조의 현대화에 의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이 사회의 핵심적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교육은 하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구조에 불과하며 사회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현대화를 탈리하여 교육의 현대화문제를 논할 수 없다. 이는 교육의 여러 가지 근본성적인 문제, 예하면 교육목적, 관리체제, 학교구조, 교육과정의 내용, 교육조건(경비와 교원의 자질) 등은 교육본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교육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교육의 현대화를 분석함에 있어 이를 국가현대화의 진행과정에 놓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현대화의 진행과정에서 서구의 계통적인 가치관과 경제모델을 참조하였지만 유가사상의 잠재적이고 뿌리깊은 힘은 여전히 한국인의 정신문화와 의식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유가문화가 일으킨 작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군체정신을 중요시한다. 유가는 개인은 언제나 군체속에서 생활하며 가족, 국가의 일원으로서 군체의 이익이 손해 받으면 개인의 생활에 대한 보장도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유가학설의 군체관념을 기반으로 한 <국민교육헌장>에서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초등·중등교육단계에서부터 군체관념의 소유를 강조하며 강렬한 민족정신과 국가관념을 지니고 있다. 이리하여 동방유가권에 위치한 한국은 인간관계의 처리에서 타인과 자기를 겸하여 고려하는 군체관념을 많이 지니고 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도 이러한 유가학설의 군체관념에 의거하여 근면, 자립, 합작의 원칙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둘째로, 윤리도덕교육과 도덕수양을 중요시한다. 유가는 교화윤리도덕을 중핵으로 한 학파라고 할 수 있으며, 유가철학은 정치윤리도덕을 특징으로 하며 독특한 정치와 윤리의 일체화를 형성하였다. 정치적 통치는 윤리교화의 지지에 의거하며 일체의 윤리교화적 원칙과 규범은 모두 정치적 수요에 적응하기에 노력한다. 또한 유가는 사회의 안정은 주요하게 도덕과 형벌에 의거하나 양자 중에서 도덕이 근본적인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여긴다. 유가는 개인적 수양의 자아완성과정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조화하며, 개인의 수양은 사회의 안정과 조화의 근본적인 보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가사상에서 출발하여 한국은 시종 각급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을 중요시하였으며 학생들의 도덕수양을 높이고 사회안정을 실현하며 전사회의 현대화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유가는 剛健有爲, 自強不息(억세고 스스로 꾸준히 노력함)의 정신을 강조한다. 유가사상은 언제나 현세를 관심하거나 중요시하며 생명이 끝난 이후거나 내세에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며 현실생활에서의 "剛健有爲, 自強不息"을 주장한다. 유가의 이러한 "剛健有爲, 自強不息"의 사상은 이미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정신으로 되었으며 학교교육을 통하여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신의 격여 하에 과거의 조선민족은 빛나는 민족문화를 창조하였으며, 오늘의 한국인민도 이 정신의 인도하에 현대화과정에서의 각종 곤난을 물리치고 짧은 기간에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한국의 현대화와 공업화의 비약적인 실현은 그들의 의식심처에 시종일관 보유하고 있는 유가전통중의 "剛健有爲, 自強不息"의 정신에 힘입었으며 부단히 간고한 창조적 노동을 진행하였다.

셋째로, 교육과 지식, 인재를 중요시한다. 한국인민은 옛적부터 유가학설 중의 "萬般皆下品, 唯有讀書高"(모든것이 다 천하고 글 읽는것만이 귀하다) 사상의

영향하에 자녀교육을 지극히 중요시하였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후 자녀는 곧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며 자녀의 학습이 자녀교육문제의 중심이 된다.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양호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의 일체를 희생하며 자녀교육에 대한 중시정도는 의식주행보다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한국의 사학이 매우 활약적인 문제는 이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식과 지식인에 대한 고도의 중시와 숭경을 자아냈으며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관심하는 전통의식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유가는 교원을 존중하여야 도를 중요시할 수 있으며 도를 중요시하여야 전 사회적인 교육을 관심하고 교원을 존중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가사상의 영향하에 한국에서는 역대로 교원을 존중하는 전통을 키워 냈으며 지금에도 국가의 인재양성과 과학문화지식의 중임을 떠맡 교원을 더없이 존중하고 있다.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1991년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본 법은 교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본 법안의 제 2 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높은 인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한국의 교원지위와 대우에 대한 관심정도를 보아 낼 수 있다.

비록 유가문화가 한국사회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지만 유가사상 중의 "학습을 중요시"하는 관념은 시험경쟁, 학력병 등 폐단도 가져왔다. 전통과 현대화사이에는 언제나 대립적인 일면이 존재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도 절대적일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가문화의 적극적인 면을 흡수하였으며 현대화에 맞지 않는 면을 개조하여 전통과 현대를 결합시켰다.

유가문화는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잊혀지고 있고 경시되고 있다. 서구 문화의 범람과 물질문명의 홍수 속에서 한국의 사회구조는 중대한 전변을 겪고 있으며 개성의 개방에서 군체의 조화, 이성적 물질주의에서 감성적인 인성주의에로의 반복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여 한국인민은 유가문화의 가치를 자각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더욱 많은 한국학자들이 유가문화의 현대적 부흥을 웨치고 있다. 금후 유가문화는 한국의 현대화과정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일으킬 것이다.